한-중남미 스타트업 Pitch-Day 및 1:1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

◀ 추진 배경 ▶

■ 본투글로벌은 국내 기술기업의 중남미 시장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미주개발은행(IDB)과 기술협력 사업 발굴 및 사업화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
- IDB 기술협력(TC: Technical Cooperation) 사업으로,
  ① '한국-중남미 기술기업의 글로벌화 육성정책 벤치마크 연구' 컨설팅
  ② '한국-중남미 스타트업 펀드' 조성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수행함

■ IDB 기술협력 사업 및 'LAC-Korea Business Submit' 의 일환으로 한-중남미 스타트업 Pitch-Day 및 1:1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

□ 행사 개요

○ 행사명 : Korea-LAC Startup Pitch-Day in 『LAC-Korea Business Summit』

※『LAC-Korea Business Summit』은 한국의 기획재정부, 미주개발은행이 주최하고, 한국수출입은행, KOTRA에서 주관하는 한-중남미 최대 경제교류행사 (10월7일~8일) (07,11,15,17년 총 4회 개최)

※ 본투글로벌, IDB와 Business Summit 행사 중 8일 Startup Pitch-Day 기획 및 운영

○ 날짜/장소 : 2019년 10월 8일(화) / 서울 신라호텔 Ruby Hall

○ 참석자 : 중남미 3개국 VIP 참가자, 한-중남미 스타트업 관계자(VC, 엑셀러레이터, 정부기관 등), 일반참가자 포함 총 150명

※ 중남미 3개국 : 콜롬비아, 우루과이, 아르헨티나

□ 행사 목적

○ 한-중남미 스타트업 육성분야 교류·협력 강화 및 한-중남미 스타트업의 교차 진출을 촉진시키는 모멘텀(momentum) 마련

○ 국내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,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서 중남미 시장의 중요성 및 잠재력 홍보

□ 행사 내용

○ 한-중남미(3개국) 20개 기업 Pitch Day 개최

○ 한-중남미 스타트업 및 투자사간 Matchmaking 상담회 운영

○ 본투글로벌 멤버사 제품·서비스 체험존 운영

구분	진행 내용
Pitch Day	■ 한국,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 각 국별 스타트업 5개사씩, 총 20개사를 선발하여 Pitching 경쟁 - 전문 심사위원이 비즈니스모델, 기술성, 시장성, 팀 역량 등 평가, 수상 기업에게 한-중남미 교차진출 지원
Matchmaking 상담회 (1:1 파트너링)	■ 중남미 스타트업(15개사) – 국내 스타트업/일반기업(미정) 매칭 - 중남미 15개사와 기술/산업 분야가 유사하고 이들 기업과의 사업 제휴에 관심 있는 국내 스타트업과 매칭 진행 - 중남미 중점산업 분야+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한국 일반기업과 매칭 진행 ※ 중남미 중점산업 분야: 핀테크(Fintech), 바이오(Biotech), 농업(Agtech), 위성(Satellite) 산업 등 ■ 국내 스타트업(15개사) - 중남미 VC(5개사) 매칭 - 국내 스타트업과 중남미 투자사간 1: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 유치 기회 발굴 ※ 국내 스타트업은 Pitching에 참가하는 5개사 + 10개사 추가 모집 ■ 중남미 스타트업 (15개사) - 한국 VC(5개사) 매칭 - 한국/아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중남미 스타트업과 한국 투자사간 1: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 유치 기회 발굴
제품·서비스 체험존	■ 본투글로벌 멤버사의 제품·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체험존 운영, Pitch Day 참석자 및 일반 참석자 대상 홍보

□ 기대성과

○ 중남미 중점산업 분야인 Fintech, Biotech, Agtech 분야에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**한-중남미 스타트업 신규 사업 개발**

- 국내 기업과 중남미 스타트업간 기술·마케팅 제휴, 조인트벤처, 채널 파트너 등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 기회 발굴

○ 국내 스타트업, 엑셀러레이터, VC 등 대상으로 중남미 중점산업분야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전파하여 **중남미 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**

○ 한-중남미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 및 교차진출(한국→중남미, 중남미→한국·아시아)을 지원하는 **VC 투자 활성화**

참고 1 행사 세부일정표

시 간		주요내용	비 고
08:30 ~ 09:00	'30	행사 등록 및 입장, 방명록 기재	
09:00 ~ 09:05	'5	개회사	본투글로벌센터장
09:05 ~ 09:10	'5	축사	IDB 관계자(미정)
09:10 ~ 10:40	'90	**스타트업 피칭 (1차)** ※ 한국-아르헨티나-우루과이-콜롬비아 순서로 각 국별 1개사씩, 기업별 발표 5분+Q&A 3분+무대준비 1분 (총 9분*10개사)	10개사
10:40 ~ 10:50	'10	휴식	
10:50 ~ 12:20	'90	**스타트업 피칭 (2차)** ※ 한국-아르헨티나-우루과이-콜롬비아 순서로 각 국별 1개사씩, 기업별 발표 5분+Q&A 3분+무대준비 1분 (총 9분*10개사)	10개사
12:20 ~ 12:30	'10	휴식	
12:30 ~ 12:40	'10	시상식	
12:40 ~ 14:00	'80	점심식사	
14:00 ~ 17:00	'180	**Matchmaking 1:1 비즈니스 미팅**	40개사 이상
	'180	**체험존 운영**	5개사

참고 2 중남미 시장 진출 스타트업 투자 가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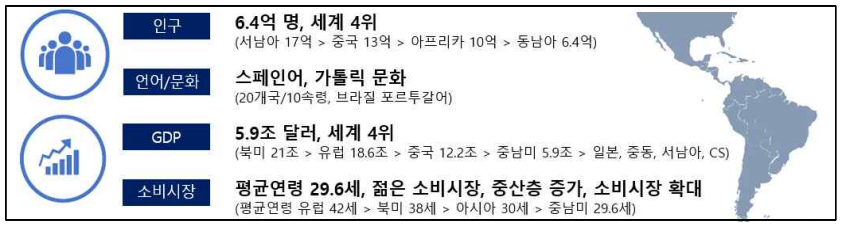
중남미 시장진출 여건 크게 호전, 마지막 블루오션

□ **대규모 시장과 젊은 소비시장을 모두 포함하는 중남미 시장의 특성**

○ **중남미 인구는 약 6.4억 명**으로 서남아, 중국, 아프리카 다음의 **세계 4위** 인구밀집지역이며, **동남아(6.4억 명) 만큼 규모가 큰 시장임**

- **동남아 시장**은 언어, 종교, 문화 등 국가 간 이질성이 큰 반면, **중남미 시장**은 국가 간 **동일언어(스페인어, 포르투갈어/브라질) 사용, 문화적 유사성** 측면에서 **시장진출 이점**이 있는 시장임

○ 중남미 GDP 규모는 5조 9천억 달러로 세계 GDP의 약 7%를 차지하고, **평균연령은 29.6세의 젊은 소비시장이 형성**되어 있으며, 중산층 증가로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



□ **외국인 투자가 유리한 중남미 시장의 투자 환경 개선**

○ 중남미는 농업, 자원·에너지, ICT, 자동차, 보건의료,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받아 왔으며, 레드오션이 된 **중국, 동남아 시장에서 눈을 돌리는 마지막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**

- 자원·에너지, 인프라, SI 프로젝트 중심으로 **국내 유수 대기업이 진출** 해있으며, 한국과의 교역 측면에서도 **30년 연속 흑자 시장**
- 특히, 중남미 주요 국가는 **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뀌면서**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**외국인 투자 환경이 개선**되고 있음

■ 우파: 브라질, 콜롬비아, 페루, 칠레, 아르헨티나, 파라과이 등
■ 좌파: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우루과이 등

- 정치, 경제, 사회문화, 기술 등 환경적 측면에서 **기회 요인이 많은 현재가 시장진출 적기**로 평가되고 있음

구분	중남미 비즈니스 환경
정치	▪ 역내 시장(태평양동맹, 남미공동시장) 통합 움직임 - 태평양동맹(PA): 멕시코, 칠레, 콜롬비아, 페루 - 남미공동시장(Mercosur):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우루과이, 파라과이 ▪ 양 경제블록간 경제 협력 합의('18.7월, PA-Mercosur 정상회담) ▪ **중남미 주요 국가가 좌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뀌면서 투자 환경의 개선** ▪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신청('18.7.23), 준회원국 가입시 멕시코와 FTA 체결 효과 기대
경제	▪ 중남미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(IMF, 2018년10월 기준) 멕시코 2.5%, 브라질 2.4%, 칠레 3.4%, 페루 4.1%, 콜롬비아 3.6% ▪ 한-중남미 FTA 활용 수출환경 개선: 칠레('04.4.1 발효), 페루('11.8.1 발효), 콜롬비아('16.7.15 발효), 한-중미(코스타리카, 엘살바도르, 니카라과, 온두라스, 파나마, '18.2.21 정식서명, '19년 중 발효 예상) ▪ 중남미 FDI 증가추세로, 자원개발 투자는 감소하고 **제조업과 기술서비스 분야 FDI 투자 지속** ('17년 주요국별 FDI 비중은 브라질 43.7%, 멕시코 19.6%, 콜롬비아 8.6%, 아르헨티나 7.1%, 페루 4.2%)
사회문화	▪ 미국과 지리적 인접, 제조업의 임금 경쟁력으로 글로벌 제조거점 부상 ▪ **한류 열풍이 강한 지역으로, 대륙별 한류 동호회 분포 중 가장 많은 한류동호회 활동 중 (중남미 560개, 유럽 444개, 아시아, 대양주 409개, 아프리카, 중동 115개)** ▪ **한국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한국 기업 수출기회 확대** ▪ 중산층 증가로 소비시장 확대, 가격에서 품질 위주 구매, 자동차, 가전, 화장품 등 소비재 수요 확대, 특히 미용/헬스케어, 안전 먹기리(농업) 관심 증대 ▪ 신용카드 사용률 증가, 온라인 지불시스템 불신 감소, 온라인 쇼핑 트렌드 확산, 모바일 결제 확산 등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▪ **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비자간 적극적인 정보공유 문화형성**
기술	▪ IT 인프라환경개선 및 매년 인터넷 보급률 확대 ▪ 인터넷 사용자수, 스마트폰 사용자수 매년 증가 ▪ ICT 산업 및 혁신기술기업 육성 정책 적극 추진 ▪ **기술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및 민간 투자 증가** ▪ 4G 통신망 확대,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확산으로 글로벌 **혁신기술기업의 유입을 희망**

*출처: 2018 중남미 진출 전략, KOTRA 참조, 본투글로벌센터 작성

국내 기술기업 중남미 시장 진출 시 큰 수익 창출 기대

□ 중남미 기술기반 스타트업 투자 규모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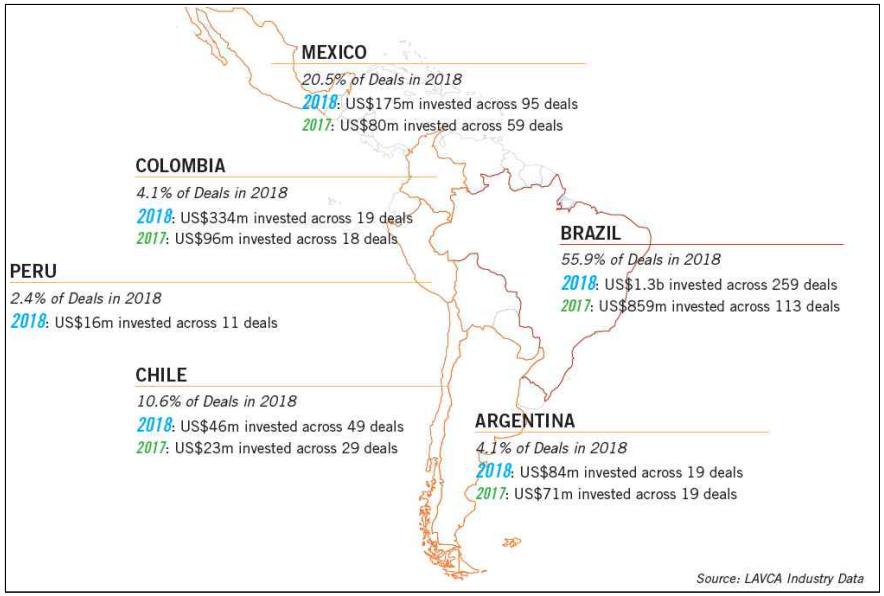
○ 중남미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을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고 **ICT 산업 및 혁신기술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,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증가**하고 있음

○ **중남미 VC 투자 규모**는 2018년 기준, 2년 연속 전년도 대비 두 배 증가하여 약 US$ 2B (2조4천억원) 규모 (2017년 US$ 1.1B, 2016년 US$500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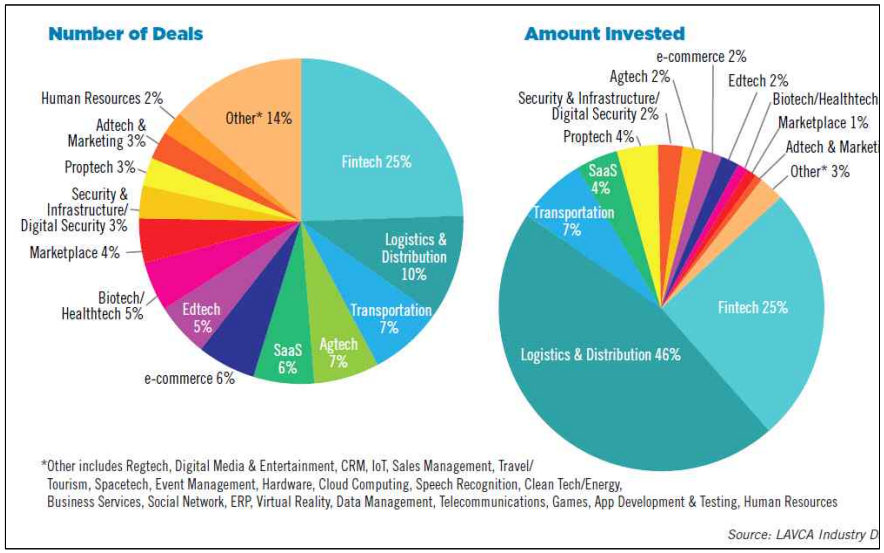
- 중남미 VC 투자 주요국은 브라질(56%), 멕시코(21%), 칠레(11%), 아르헨티나(4%), 콜롬비아(4%), 페루(2%) 등

- 중남미 VC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술 분야는 Fintech, Logistics & Distribution, Transportation, SaaS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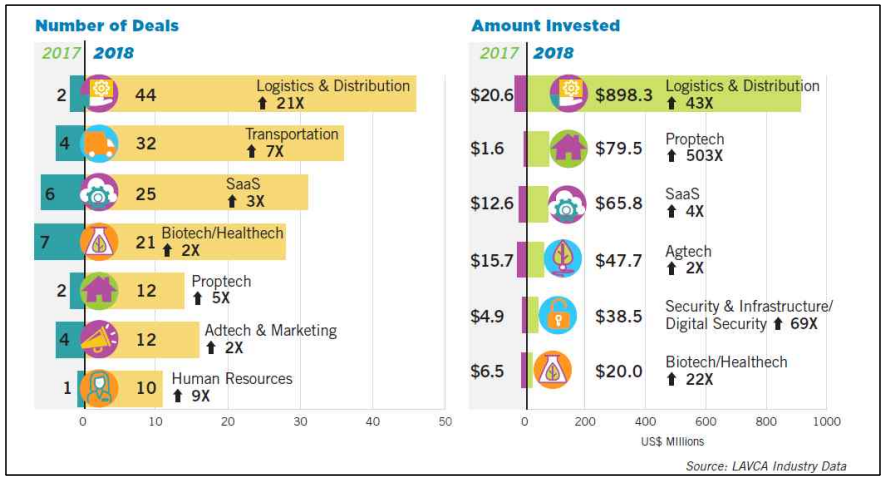
– 중남미 주요 국가별 VC 투자 분포 (출처: LAVCA, 2019) –



- 중남미 VC 투자 기술 분야별 투자건수/금액 (출처: LAVCA, 2019) –



○ **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투자유망 기술분야**는 Proptech, Agtech, Security & Infrastructure/Digital Security, Biotech/Healthtech 등 분야임



☐ 중남미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

○ 중남미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**Tecnolatinas는 5,000개사 이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**을 받고 있음(Tecnolatinas, 2017)

○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**유니콘 기업 수는 19개사**(2019년4월기준)이며, 브라질(10개사), 아르헨티나(6개사)에 집중되어 있음

– 중남미 유니콘 MAP –

☐ 한-중남미 스타트업간 파트너십의 전략적 이점

○ 블룸버그 혁신 지표에 따르면, 한국의 기술개발 역량(R&D Intensity)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상용화(Productivity) 부분은 낮은 순위임

- 국내 스타트업은 R&D 중심의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시장이 작은 이유로 해외 시장의 진출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

○ **국내 기업의 우수기술 완성도**를 높이기 위해서는 큰 규모 시장대상 **검증 및 주요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중남미는 Test-bed 환경으로 적격이며, 한국의 기술력과 중남미의 거대 시장을 합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**

- 한국의 장점 : 다양한 원천기술, 빠른 도입 및 적용, 맞춤형 R&D
- 중남미 장점 : 거대한 시장 및 산업 규모, 젊고 경험 있는 산업 인력, **기술 실증환경, 최신 혁신기술에 대한 수요와 신기술 접목을 환영하는 수용력이 큼**

☐ LAC-Korea Startup Fund를 통한 중남미 시장 진출 지원 및 수익 창출

○ 동 펀드를 통해 국내 기술혁신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고, 중남미 진출을 다각적, 단계적으로 지원

- 중남미 시장에 현존하는 문제에 대한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접근으로 **신사업 발굴 및 한-중남미 스타트업 글로벌 동반 진출 지원**

○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혁신기술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하여 **first-mover 이점 활용, 유니콘 배출을 통한 수익 창출 기대**